

번호 16-4

제 목	국문	최근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 증가 현황 분석 및 단기적 개선방안			
	영문	Increase of Patient's Cost-sharing due to the Latest Increases of Insurance Fee's Level and the Short-term Revision Plan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진석 ¹⁾ , 하범만 ²⁾ , 이상이 ³⁾ , 김창엽 ¹⁾ , 김용익 ¹⁾ 1)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2)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과, 3) 제주 의대 예방의학교실			
	영문	Jin-Seok Lee ¹⁾ , Beom-Man Ha ²⁾ , Sang Yi Lee ³⁾ , Chang-Yup Kim ¹⁾ , Yong-Ik Kim ¹⁾ 1)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rmed Forces in Medical Command, 3)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 스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년 10월				

1. 연구 목적

환자 본인부담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가 진료경비의 일부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초 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은 의료이용자들이 비용을 의식하게 만들어 가벼운 질병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의료수요를 통제하는 동시에 의료보험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본인부담은 필요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잇따른 수가인상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시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의 마련-본인부담체계의 재조정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인부담 증가의 전체적인 크기나 세부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되거나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이루어진 본인부담 증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개선책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의약분업 관련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의 증가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 증가 문제에 대한 단기적 개선방안-본인부담체계의 적절한 재조정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 연구 방법

작년 11월 15일 이후의 의약분업 관련 수가인상 내역을 파악한 후, 수가 인상이 이루어진 시기별로 투약일수별 환자 본인부담 크기를 파악하였다. 초진/재진, 주사제 포함/주사제 미포함, 소아 및 야간 할증이 적용된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본인부담 크기를 분석하였다. 약값의 크기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이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1일 약값이 1,000원인 경우로 가정하였으며, 총 진료비에 포함되는 검사료 및 시술료의 크기는 97년도 진료경향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파악하였다. 본인부담체계 재조정은 진료비 및 조제료의 총액기준과 총액기준 초과시 적용되는 본인부담 비율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

부담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본인부담을 의약분업 이전의 수준과 유사하게 맞추기 위한 본인부담체계 재조정의 크기와 비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추가적인 수가 조정이나 본인부담체계 조정이 있을 경우, 연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결과는 중간분석 결과에 해당한다.

1) 환자들이 지출하는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3일 투약을 기준으로 할 때, 의약분업 실시 전에 비해 본인부담이 최고 2.2배 가량 증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검사나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검사료나 시술료를 포함한 경우 본인부담의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본인부담 증가는 특히 처방에 주사제가 포함된 경우, 소아환자나 야간할증이 적용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기투약 환자들의 본인부담 증가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분 투약을 받는 재진 환자의 경우 3,000원 이상, 60일분 투약을 받는 재진 환자의 경우 4,400원 이상의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빈번한 투약일수인 3일 이내의 투약 환자가 기본 본인부담금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료비와 조제료의 총액 기준을 각각 15,000원, 10,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투약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수가 인상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30% 본인부담비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의약분업과 수가 수준의 적정화는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지점 중의 하나는 국민의 수용성이다. 제도적 변화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동의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급격한 경제적 부담의 증대는 제도적 변화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최근 이루어진 수가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함께 국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의 크기와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